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, 통화긴축에 따른 고용 둔화 여부 등에 관심
 - 미국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
 -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, 확장의 기준인 50을 하회
 - 신흥국, 외국인 자본유출 5개월간 지속.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 금리인상 등이 원인
 - **국제금융시장(주간):** 미국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주가 상승[+4.3%], 달러화 약세[-0.8%], 금리 하락[-10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대표 기술주의 실적 관련 긍정적 평가 등이 원인
 유로 Stoxx600 지수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3.0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1%, 2.1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침체 우려 등이 반영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3개월래 최저 수준
- 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1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7/29일	7/22일	전주말대비			7/29일	7/22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130.3	3,961.6	4.26%	국채 금리 10y	미국	2.65%	2.75%	-10bp
	유럽	438.29	425.71	2.96%		독일	0.82%	1.03%	-21bp
	중국	3,253.2	3,270.0	-0.51%	CDS 5y	한국	40bp	47bp	-7bp
	일본	27,802	27,915	-0.40%		중국	72bp	82bp	-10bp
	한국	2,451.5	2,393.1	2.44%	위험 지표	EMBI+	443	471	-28bp
환율	달러지수	105.90	106.73	-0.77%		VIX	21.33	23.03	-7.38%
	유로화	1.0220	1.0213	0.07%		WTI유	98.62	94.70	4.14%
	엔화	133.27	136.12	2.14%	원자재	구리	357.4	334.9	6.72%
	위안화	6.7445	6.7515	0.10%		금	1,765.9	1,727.6	2.22%
	원화	1,299.1	1,313.0	1.07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, 통화긴축에 따른 고용 둔화 여부 등에 관심

- 8/5일 노동부는 7월 고용보고서를 공개할 계획.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, 신규 고용은 25~25.5만건으로 전월(37.2만명)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. 한편 같은 달 실업률은 3.6%로 6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
- 만일 이러한 예상이 정확하다면, 시장에서는 통화긴축에 따른 영향이 고용 둔화를 유도했다고 해석할 가능성. 그 동안 신규 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, 전문가들은 연준의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결국에는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견 피력
- 또한 이러한 고용둔화는 경기침체 우려를 증폭시킬 소지. 특히 지난 주 미국 성장률이 2/4분기에도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술적 측면에서 경기침체는 이미 발생. 다만 공식적인 경기침체 여부는 NBER(전미경제연구소)에서 판단
- 한편 일부에서는 7월 신규 고용이 큰 폭 감소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면 연준에 대한 통화긴축 완화 요구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. 특히 이번 주에는 8/2일 세인트루이스 및 시카고 연은 총재, 8/4일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예정
- Citigroup의 Ed Acton은 만일 7월 신규 고용건수가 25만건 내외를 기록한다면, 이는 연준이 기대하는 '경기침체 없는 고용 둔화'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. 다만 15만건 하회 시 통화긴축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첨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

- 카슈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(2%)에 근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.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폭을 알 수는 없으나, 0.5%p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

■ 미국 7월 미시건대 1년 및 5년 기대 인플레이션, 모두 전월비 하락

-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.2%로 전월(5.3%) 수준 하회.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(3.1%→2.9%). 이번 결과는 최근 실제 물가지표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, 조만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소비자의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

■ ECB 부총재,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유로화 약세

- 데 쿤도스 부총재는 ECB가 특정 유로화 환율을 목표로 정하지 않았으나 환율은 경제 전망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. 역내 국가들이 EU의 회복 계획에 부합하는 재정 정책 시행을 기대한다고 첨언

■ 중국 국무원,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아닌 효과적 투자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방침

- 3/4분기 건설활동이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작업의 효율화 및 최대 고용창출 등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
- 한편 상무부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글로벌 공급망의 왜곡과 국제무역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. 이에 대응하는 합법적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

■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, 확장의 기준인 50을 하회

- 해당 지수는 49를 기록하며 전월(50.2) 대비 낮은 수준. 이는 일부 지역의 방역 조치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기인. Jones Lang LaSalle의 Bruce Pang은 향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당초 우려보다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발언

■ IMF, 아시아의 일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금리인상 속도 높일 필요

- Krishna Srinivasan 아시아태평양 지역 책임자는 향후 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좀 더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언급. 이와 같은 금리인상으로 부채 비중이 높은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

■ 신흥국, 외국인 자본유출 5개월간 지속.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 금리인상 등이 원인

-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흥국 자본유출이 5개월 연속 지속되었으며, 이는 기록이 시작된 '05년 이후 최장. 해당 기간 자본유출 규모는 380억달러. 이는 신흥국의 금융위기 위험을 가중시키며, 단기간 내 추세 전환 가능성도 낮은 편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7/29~31 현지시각 기준)

-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서비스 PMI: 53.8, 6월(54.7), 예상치(52.3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ISM 제조업 PMI, 중국 7월 차이신 제조업 PMI, 독일 6월 소매매출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식품 가격 안정,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. 과도한 낙관은 경계할 필요 - WSJ**
(Falling Food Prices Ease Upward Pressure on Global Inflation)
 - 최근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으로 작용했던 밀, 옥수수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관측. 이는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. JPMorgan은 식품 가격 상승세 둔화 시 세계 인플레이션은 1.5%p, 신흥국 인플레이션은 2.0%p 낮아질 것으로 추정
 -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우전쟁, 유럽의 이상 기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의 재상승 가능성을 제시. 또한 식품 가격 하락이 공급망 제약 완화보다는 달러화 강세 및 글로벌 성장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예상에 기인했음을 고려하면 현 상황을 긍정적 시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존재
- **미국 경제,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시 실업률 상승 전망은 상이 - WSJ**
(Lower Inflation Likely Requires Higher Unemployment: How High Is the Question)
 -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(2%) 도달을 위해 고용 및 임금상승을 억제해 요구. 이와 관련된 WSJ 설문조사에 따르면,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내년 말 실업률은 4.3%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. 반면 일부에서는 최대 10%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
 - 실업률의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필요한 노동자에 비해 실제 고용 가능한 노동자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주장
 - 그러나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은 역사적으로 구인율이 정점에서 하락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실업률 상승을 동반했다고 지적. 또한 그는 자연실업률을 5%로 추정. 이러한 가정을 반영한다면, 2%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 과정에서 7.5%의 실업률이 2년 동안 지속되거나 6%의 실업률이 5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
- **유럽의 결속력, 인플레이션-에너지 공급 차질 등으로 시험대에 직면 - Financial Times**
(Europe's fight to stay united over war in Ukraine)
- **OPEC의 생산량 증가, 추가생산 여력 부족 및 러시아의 방해 등으로 기대난 - 블룸버그**
(Putin Won't Let OPEC Help Bring Down Oil Price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